

인도 캘커타, 오리사주 지역개관 및 문다 종족현황과 선교전략

IFR 3기 훈련팀

목 차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요	
.....	1
제 2 장 3기 training team 구성	
.....	5
제 3 장 일정 보고	
.....	5
제 4 장 지역 및 종족 보고서	
.....	7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 요

India field research 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 1절~2절>

1. I.F.R. 이란?

India Field Research는 인도 각 지역과 종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과 인도 민족의 실체성을 알리고 인도 복음화에 대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하며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해 현지 선교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학생 모임이다.

인도 땅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며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선교적인 방향성을 살피며, 그 땅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알린다.

2. I.F.R.의 목표

- 팀원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로 서게 한다.
- 인도땅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와 관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땅이 어떠함을 알린다.
- 모든 팀원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게 한다.

3. I.F.R.의 역사

- 2002년 김군오 교수님 중심으로 1기 훈련 팀 6명이 모집
- 2002년 1학기 여름방학에 문화 사역팀(챔버, 대전 찬양팀)과 연합및 리서치
- 2002년 2학기 미션팀 구성 (MIC, PITCHPIPE)
- 2002년 2학기 겨울방학 미션팀(MIP) 태국과 인도에서 문화사역
- 2003년 1학기 IFR 2기 훈련팀 4명 모집
- 2003년 1학기 여름방학에 7명이 인도 북부 안사리 종족 리서치
- 2003년 2학기 IFR 3기 훈련팀 2명 , 비전팀 2명 모집

- 2003년 2학기 겨울방학에 4명이 켈커타 지역 연구 및 오리사주 문다 종족 연구

4. I.F.R.의 훈련 과정

(1)학기 중 훈련

10주 간의 훈련을 학기 중에 실시한다. 훈련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특강 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이외에 리서치 대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사전 문헌 조사, 조사표 작성, 리서치 실습을 한다. 매일 밤 10시 기도회를 하며 말씀 읽기와 묵상, 지체들간의 교제를 나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익히고 인도에 대해서 알며 우리 안의 연합을 이룬다.

(2)방학 중 합숙 훈련

방학 후 10일 간의 합숙 훈련 시간을 가진다. 기본적인 훈련 이외에 인도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 내의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리서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아침 묵상과 10시 기도회를 동일하게 하며, 공동체의 역할들을 서로 연습하고 필드의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며, 핸드 북을 작성한다.

(3)필드 리서치

실제 조사 지역에 들어가서 준비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와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또한 말씀 선포와 워십댄스, 찬양, 대적기도 등을 통해 그 땅의 악한 영을 묶는 영적전쟁을 수행한다.

(4)보고서 작성

리서치 후 정탐의 열매인 보고서와 동원자료를 만든다. 각 팀, 조, 부 보고서와 종족 보고서, 선교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선교 동원을 위해 사진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자료들을 만들며 사진 전시회와 동원 보고 예배를 준비한다.

(5) 선교 동원

작성된 보고서와 간증문 등을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각 교회와 단체에 가서 준비한 미디어 자료와 간증 등을 통해 동원사역을 담당한다.

(6) 제자 양육 체계

인도 현지에 다녀온 훈련생들이 현장에 다녀온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 성경공부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한다.

5. I.F.R의 비전

- 훈련과 리서치를 통해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양성한다.
-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 Field Researcher, 21세기를 이끌어갈 Christian Leader를 양성한다.
- 학생의 자발적 선교체계를 확립하고 한동대학교 선교 모임들의 연합을 통해 한동 선교 센터로 발전시킨다.
- 인도 선교사와 연구자, 관심자들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 한국 교계에 새로운 단기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 땅의 필요와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한다.
- 사람들이 인도 땅을 알고 잊혀진 땅과 종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중보 할 수 있게끔 돕는다.

6. 기존 단기선교와의 차이점

단기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활동 결과의 철저한 사후 관리이다. 기존 한국의 단기 선교 팀은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활동의 결과를 정리, 보고하지 않아 선교 자료나 정보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적잖이 받아왔다.

한동대 I.F.R은 이러한 기존 단기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팀을 구성한다.

- 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충분한 기도와 훈련, 연합의 기간을 갖는다.
- 대학의 선교 모임으로서 선교활동에 학문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 사전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 소수의 조별 활동을 원칙으로 조별로 현지 안내인과 사역자와 연합하여 지역학적 연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충실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지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활동전의 준비과정과 리서치 후에 보고서 작성과 동원활동을 더욱 중시한다.

제 2 장

3기 Training team 구성

지도 교수: 김군오 교수님

1. 학기 중 훈련 운영체제

지도교수 : 김군오 교수님

디렉터 : 김지성 (97)

섬김이 : 박청해 (02)

최 훈 (03)

훈련생 : 권이정하(01)

최인섭 (03)

간 사 : 정난영(98)

2. 필드에서 역할에 따라

디렉터 : 없음

기 장 : 최인섭(03)

예 배 부 : 최인섭(03)

찬양인도 : 최인섭(03)

문 서 부 : 최훈(03)

로드메니저/회계/총무: 정난영(98)

미디어부 : 전학성(02)

제 3 장

일 정 보 고

일정 보고

(1) IFR 3기 전체일정 개략

1) 조직 및 훈련

개강예배	2003-8-28
동원예배	2003-8-31
IFR보고동원예배	2003-9-4
인터뷰	2003-9-5 ~ 2003-9-18
OT, 1차캠프	2003-9-19~2003-9-20
1차 리서치	2003-9-27
2차 리서치	2003-11-22
러브피스트	2003-12-12
파송예배	2003-12-11
10일합숙	2003-12-19~2003-12-27
리서치	2003-12-28~2004-1-19
보고서 합숙	2004-1-26~2004-2-1

2) 10일 합숙 및 출국

10일합숙	2003//12/16 - 2003/12/28	자대 425(B)호
출국	2003//12/29	

3) 리서치

켈커타 리서치	2003//12/30 -2004//01/11
문다 종족방문	2004//01/12-2003//01/13
BHUBANESWAR	2004//01/14
방 문	

4) 귀국 및 보고서 합숙

귀국	2004//01/20
보고서 합숙	2003//01/25 - 2004//02/01
LTC	2004//02/25 - 2003//02/28

제 4 장

지역 및 종족 보고서

I 개요

1. 보고서 목적

인도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힌두교에 비해 20%정도 되는 무슬림들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어 나간 무슬림까지 합쳐서 인구 통계로 보면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힌두교에 비해 인도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나 세계 선교 역사로 보나 인도 무슬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번 조사 지역은 안사리 종족이 사는 곳인 다르방가, 바라나시, 델리, 사하란푸르 이다. 안사리 종족이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떠하며, 이 땅의 필요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냄으로써 한국교회에 알리며 이땅을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소망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소망하는 장기 사역자가 나오길 소망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 지역

켈커타(웨스트벵갈주) , 부바네스와르(오리사주)

(2) 조사기간

- 12월 30일~1월 11일 켈커타 지역 리서치
- 1월 14일 부바네스와르 지역 리서치

(3) 조사 방법

2-3명이 한팀을 이루어 한명은 인터뷰를 하고 한명은 질문을 작성하고 메모, 중보기도를 하며 나머지 한명은 주위 상황 정리와 미디어를 찍는 방법으로 리서치가 이루어 졌다. 델리를 제외한 세 지역의 연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안사리 종족이 사는 곳을 알기 위한 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 졌고 연결통로를 통해 알게 된 안사리 종족의 상점이나 마을에서 종족 조사표를 근거로 한 인터뷰 위주로 리서치가 진행이 되었다.

다르방가와 사하란 푸르에서는 현지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 지역과 무슬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나 안사리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직접 그 종족인 사람과의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통하여 이루

어졌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서 중간에 다루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II 켈커타 지역 연구

1. 켈커타의 IDENTITY

- 켈커타는 서벵갈 주의 수도이며 인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으로 제 1의 항구이다. 상류의 강어귀로부터 154km정도 상류지점, 갠지스강의 지류인 후글리 강의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무역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지만 덥고 습한 강기슭 저습지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거주지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종족이 모여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뒤엉켜 사는 매우 복잡한 도시 풍경을 자아낸다. 이러한 이유로 켈커타는 삶의 질이 매우 낮은 도시로서 세계 3대 최악의 도시로 교통사고사망율 세계 1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매우 심한 도시이다.

- 서부 인도의 관문이 뭍바이라면 동부 인도의 관문은 켈커타이다. 켈커타는 근대 인도의 문학 및 예술적 사고와 인도 민족주의의 탄생지이다. 켈커타 시의 기원은 1987년 가을 영국 동인도 회사의 대리인인 차르낙(Job charnock)이 무굴 왕실로부터 수타나티에 근거지를 세울 것을 허락 받아 여기에 윌리엄 성이 건설되면서 시작된다. 켈커타라는 이름은 나중에 새로운 상관(商館)이 되는 세 개 마을의 하나인 칼리카타에서 유래되었다. 상관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동인도 회사 상인들이 무굴 제국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상업 활동을 하던 곳이다. 무굴 정부는 맨 처음 영구 상인들에게 아라비아 해에 연해 있는 수라트에 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곧이어 뭍바이와 마드라스의 세인트 조지와 켈커타의 윌리엄 성등에 상관이 설치됨으로써 이 세 지역이 영국 동인도회사의 세력 근거지가 되었다.

300년 역사를 통하여 일개 어촌에 불과했던 켈커타는 1,100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 켈커타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인도에서 네 명의 노벨 수상자가 이 도시에서 나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는 IIT공대와 켈커타 대학,

프레지던시 대학들이 있다.

2. 켈커타 개관

www.mapsofindia.com



- (1) 소속 국가 : 인도
- (2) 주 (STATE) : West Bengal (서 벵갈주)
- (3) 주 도 : 서벵갈주의 주도
- (4) 위 도 : 북위22도82분
- (5) 경 도 : 동경88도20분
- (6) 해 발 : 5.3 m
- (7) 바다와 거리 : 벵갈만으로부터 96.54km
- (8) 표준 시간 : GMT+5:30
- (9) 평균 기온 : 겨울(12-27C) 여름(24-38C)
- (10) 평균 강수량 : 1600mm
- (11) 도심 면적 : 140평방 km
- (12) 도시권 면적 : 1,380 평방 km
- (13) 도시 인구 : 458만 544명(2001)
- (14) 총 인 구 : 11,830,000명(1991)
- (15) 인구 밀도 : 33000 명 / 평방. km. (1991)
- (16) 인구 성장률 : 연간 1.79% (1991)
- (17) 사용 언어 : Bengali, Hindi, Urdu, English
- (18) 노벨수상자 : 4명

(19) 주요 산업 : 황마,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공업

(20) 교통 수단 : 인력거, 마차, 사이클릭샤, 오토릭샤, 궤전 전차, 택시,
2층 버스, 지하철

a) 기차 - 하우라, 시알다역(두 기차역 사이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Tram,
버스)

b) 비행기 - 인도 항공사(인접 외국노선, 국내 대부분의 대도시 연결)

c) 배 - Shipping Cooperation of India(SCI)에서 안다만 제도의 수도 포트 블레이어를 매월 두 차례 연결하고 있다. 두 지점을 잇는데 3~4일의 시간이 걸리는 이 배를 외국 여행자가 이용하려면 Rs.2,000 가량 하는 1등 선실이나 이보다 더 비싼 값의 특실을 이용해야 한다.

(21) 주요 관광지

a) 다르시네슈와르 사원

캘커타 근교의 최대 힌두교 사원으로 캘커타 시내 북쪽 14km쯤 되는 후글리 강변에 위치해 있다. 도킨네쇼르사원으로 불리어지며 시바신의 사원 하나와 칼리 여신의 사원 열둘이 모여 있으며 1847년에 여신도에 의해 세워졌다. 또한 이곳에서 힌두교의 위대한 성자 라 마크리슈나가 선과의 합일점에 도달하여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설법함으로써 사원은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다. 언제나 신자들의 기도 소리가 있다.

b) 빅토리아 기념당(Victoria Memorial)

타지마르를 모방한 르네상스양식의 흰 벽의 건물로 캘커타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여왕을 기념으로 해서 1921년에 세워졌다. 수많은 미술품과 고문서가 전시되어 있다.

c) 칼리사원

캘커타의 수호신 칼리 우상을 모신 성지로 초우링기 거리의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사원 안에는 요란한 색으로 얼굴이 그려진 새까만 돌이 있는데 이는 칼리 여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며,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발을 맡기고 맨발로 다녀야 한다. 칼리사원을 가려면 초우링기를 따라 운행하는 시가전차를 이용하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사원으로 통하는 뒤편 도로에는 힌두 제례 도구를 팔고 있다.

d) 인도 박물관(Indian Museum)

1814년에 창립한 인도 최고의 박물관, 인도 각지의 대규모 출토품, 뛰어난 조각들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하루후토의 스토아빠 둘레를 싸고 있는 탑문과 난관의 부조 조각(기원전 2세기)이 놓칠 수 없는 명품이다.

e) 캘커타 공원(마이단)

후글리 강과 초우링기 거리 사이에 위치한 공원으로 남북의 길이가 약 3km이며, 동서의 길이는 1km에 달한다. 저녁에는 시민들로 분주하다. 공원 중앙에는 1773년 영국의 인도 지배 거점으로 세워진 윌리엄 요새가 있다. 북쪽에는 높이 48m의 큰 원 기둥인 샤히드 미나르라는 탑이 있는데 이는 영국이 네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만든 것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면 캘커타 시내 전경을 즐길 수 있다. 공원 남쪽으로 초우링기를 따라 높이 60m의 고딕 양식의 세인트 폴 성당이 있다.

f) 동물원(Zoological Gardens)

1876년에 개원한 인도 최대의 동물원, 약 16만 평방m의 원내에는 주로 열대지방의 동물들이 모여있다. 그 중에도 백호는 동물원에서 제일 인기를 끌며, 또 오랑우탕, 원숭이, 사슴, 큰 박쥐 등이 자연 그대로 생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g) 식물원(Botanical Gardens)

1786년에 창설되었던 110만 평방 m의 대식물원, 원내에는 약 12,000종 이상의 식물이 있고, 그 중 수령 200년을 헤아리는 거대한 바니안수(별명:벵갈보타이슈, 인도의 성수)가 있다. 높이 약 30m, 400m사방에 가지를 뻗치고 있다.

h) 나코다 모스크

최대의 모스크로 시내 북쪽의 RABINDRA SADAN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악바르 영묘를 본 떠서 건축한 인도와 사라센 양식의 건물이다.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모스크는 붉은 색 사암으로 만든 높이 46m의 첨탑 두 개가 솟아 있고 주위에는 각양각색의 무슬림이 운영하는 상점이 들어서 있다. 마이단 공원의 북쪽에 있어 에스플러네이드의 시가 전차 정류장에서 Bag Bazar행을 타고 10-15분 정도면 도착한다. 나코다 모스크 근처의 묵타람 바부거리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마블 팔

리스가 있으며, 이는 이 지방 거상인의 저택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회화와 골동품을 전시하고 있다.

i) 자인 사원(Jain Temple)

1867년에 자인교 제 10대째의 구세주에 바쳐졌던 대리석으로 만든 사원. 빠르슈나토 사원으로 통칭, 절에는 열대의 꽃이 피어 넘쳐 흐르는 정원에 둘러싸여 곁은 대리석으로 만들고, 내부는 호화로운 장식으로 되어 있다.

(22) 빈민가 생활

- a) 15년 이상 빈민가 생활자 빈민가 생활자의 70%
- b) 30년 이상 빈민가 생활자 빈민가 생활자의 41%

3. 도시의 맥락적 상황

(1) 인구 : 약 1200 만명

(2) 특수 도시 및 구역

■ **SALT LAKE CITY** - SALT LAKE라는 지명은 의미 그대로 염호라는 뜻에 유래되었고 실제로 물에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도시는 정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제공해 준 땅인데 부자들에게 임대형식으로 팔았으며 990년의 임대기간을 두었다. 최근 들어 IT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NEW SALT LAKE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MEGA CITY라 하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단지가 들어선다. 이곳에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거나 할 수 없다. 또 SALT LAKE CITY안에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 경기장은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 규모의 경기장이다.

이 SALT LAKE CITY는 서울의 평창동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켈커타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구역이다. 대나무 다리를 지나 강을 건너면 바로 빈민촌이 나온다. 서로 왕래가 어렵고 밤 10시 이후에는 경찰이 경계지역에 서서 빈민촌의 사람들이 SALT LAKE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킨다. 낮에는 서로 왕래가 가능한데 왕래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25파이샤(0.25RS.)의 통행세를 내야 한다.

■ **이슬람 공동체구역** - 어떤 행정구역으로 나뉘져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상 무슬림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켈커타 안에 무슬림은 전체 도시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켈커타 안에 이슬람 지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 모스크가 곳곳에 지어져 있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스피커를 통해 이 지역에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골목이 비교적 좁고, 집들이 최대한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하는 듯 거의 붙어 있었다. 이들의 결혼 복장은 인도 전통의상을 사용하고, 힌두교에서는 1부 1처제이지만 무슬림들은 1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 **중국인 거주지** - 켈커타에는 꽤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인도 전역에 2500명의 중국인이 있다면 그 중에 20000이 이곳 켈커타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왕래가 있었던 것은 AD 7세기 굽타왕조 때부터이다. 처음 인도를 방문한 중국인은 상인, 승려, 학생들이었다. 중국 무역은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 또는 서남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 졌고 바다를 통해서도 중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항구는 켈커타의 후글리강과 약 120km 떨어진 다모다강 유역이었다. 중국인으로써 처음 인도에 정착한 사람은 19세기 차 무역을 했던 용타이췌라는 사람이었다. 2차 세계 대전까지 중국인 공동체는 점점 늘어나 20만명에 달했고 차이나타운이 생성될 만큼 그 수가 많았으나 인도의 독립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 들어 약 20000명의 사람들만이 인도에 남고 나머지는 캐나다나 호주, 미국등으로 이민가게 된다.

우리가 보았던 현재 중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아침마다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주로 인도인들이다. 이 지역의 중국인들은 주로 Tibetan들인데 앞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티벳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내려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형태가 조금은 중국의 분위기를 풍기고 벽 등에 한자가 쓰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중국인들은 티벳에서 처럼 라마불교나 중국에서 신봉한 종교를 따르지 않고 인도인들처럼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인도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간다.

(3) 정치적 상황

- 인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하의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은 25개 주와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3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는데 BJP라는 힌두정권과 congress, community

이다. 현재는 BJP라는 힌두정권이 인도 전역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점차 그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말 그대로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종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점차 주 정부의 정권을 BJP가 잡게 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큰 이변이 없는 한 힌두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켈커타는 공산당이 주정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켈커타 주 정부는 공산당이 집권해왔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인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고, 전 국토를 통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정권이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인도의 주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공산당이 켈커타 주 정부를 관할했었기 때문에 켈커타는 공산국가에 볼 수 있는 공산정권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도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지만 중간 고위 간부의 부패와 편법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켈커타 주민 즉, 벵갈리들은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관공서에서 행정처리가 매우 늦다. 또 이러한 공산당의 오랜 정권으로 인해 타 지역 사람들에게 벵갈리 사람들은 다소 융통성이 없고 권위적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다지 타 지역 사람들은 벵갈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학식이 많을지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4)경제적 상황

켈커타는 인도에서 상업 및 경제 도시이다.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민과 낮은 계급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빈민과 부자를 동시에 알아야 하며, 낮은 계급의 삶과 높은 계급의 삶을 동일하게 알아야 한다. 켈커타도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신분제로 인한 빈부의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도시이다. 길 하나 사이로 빈민촌과 부유한 건물단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다. 시장의 한 귀퉁이에는 시장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델리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카스트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로 매우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켈커타 한 지역은 커다란 건물과 정원으로 꾸며진 곳이 있다. 겉으로 봐선 건물이 그다지 깨끗하거나 신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

가면 수영장과 온갖 호화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건물은 500 억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또 켈커타에서 부자들이 이용하는 상가 둘이 있는데 Forum과 Pantalong이다. 이곳은 해외 유명 수입품이 들어와 있고, 가격도 1000 Rs. 가 넘는 물품도 꽤 많다. 주로 고위층,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5) 도시화 상황

켈커타는 상업 및 경제도시로서 중심은 여느 도시와 같이 많은 건물과 도로, 상가등이 있으나 조금 외각으로 나가면 시골 농촌의 풍경의 마을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각의 많은 호수와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논과 밭의 정경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도시화된 그 중심은 도시화로 인한 삶의 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인구로 인한 조밀한 인구 밀도, 수많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심각한 매연과 소음, 실업 문제와 주택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환경오염 심각해 세계 3대 최악의 도시로 꼽힌다.

최근 인도는 점차 개방화 물결을 타고 점차 개발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경제와 상업의 중심도시로서 켈커타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점차 켈커타도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문화적 특징

켈커타는 근대 인도의 문학 및 예술적 사고와 인도 민족주의의 탄생지이다. 켈커타 전체로서는 인구가 조밀하고 주거 지역이 몹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 200개가 넘는 공원과 광장이 마련되어 있다. 길이가 3km 폭은 1.5km를 가진 마이단이 가장 잘 알려진 개방된 공간인데 이곳에 크리켓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다. 마이단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켓 운동장의 하나인 란지 스타디움이 있다. 메타지 스타디움은 실내 경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시 동쪽에 건설된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은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시에는 몇 개의 경마장, 골프장이 있고 보트장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스포츠 클럽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축구, 크리켓의 열렬한 팬이다.

켈커타는 광범한 분야에 걸쳐 30개 이상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184년 창설된 인도 박물관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큰 박물관이다. 고고학적 역사적 유물, 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값진 것을 보유하고 있다. 켈커타 대학교의 에스토시 박물관은 특히 벵골 지방의 민속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켈커타 대학교의 도서관은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대학의 국립도서관은 인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희귀한 책과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캘커타는 1757년에서 1912년까지 영국령 인도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해왔으므로 많은 건물이나 기념비에서 서양식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절충해놓은 문학인의 집과 빅토리아 기념관은 찾는 이에게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캘커타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문학적, 종교적 정취를 듬뿍 안고 있는 도시이다. 인도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성적인 노력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다.

수세기 동안 동, 서문화의 융합으로 캘커타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창설되었다. 캘커타 대학과 자다프라, 라빈드라 바라티의 3개 대학 이외에도 아시아 학회, 뱅골 문학회, 라마크리슈나 문화 연구소, 비를라 예술문화대학,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등이 창설되었다.

캘커타 사람들은 오랫동안 문학, 예술을 추구하는 데 능동적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문예 운동은 인도 전역에 걸쳐 문화적 르네상스를 촉진시켰다. 이 운동에서 최고의 창도자는 1914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이다. 시, 음악, 드라마, 미술에서의 타고르의 눈부신 창의성은 이 도시의 문화 생활을 계속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타고르 집안은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지배자와 결탁하여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대표적인 집안이지만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는 민족 의식이 투철한 인물이다. 그는 일련의 강연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커즌 인도 총독의 뱅골 분할 정책에 반대하여 대대적인 스와데시(토산물 애용)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타고르는 애국심에 편승하여 스와데시 상점을 열기도 하였다.

뱅골 문학의 절정은 시성 타고르의 신앙열이 넘쳐흐르는 시로 승화되었으며 그의 유명한 시들은 원래 이 고장의 토속어인 뱅골어로 씌어진 것들이다. 뱅골인들은 뱅골어를 가장 우수한 언어로 믿고 있으며 뱅골어로 씌어진 훌륭한 문학 작품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캘커타는 이 나라에서 예술 운동의 전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몇 개의 예술 모임은 매년 정기적인 작품 발표회를 지속하고 있다.

캘커타는 또한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음악과 무용의 중심지이다. 1937년 타고르는 캘커타에서 처음으로 전뱅골 음악회를 개최했다. 그 후로 수많은 인도고전 음악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 수많은 고전 무용가들의 고향이기도 한 캘커타는 우다이 산카르가 서양의 연극 기법을 인도의 전통 부문에 적용하려는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가 세운 무용, 음악, 드라마 학교는 1965년 이래 이 도시에서 존속해오고 있다.

국립극장이 건설됨으로써 전문적인 연극이 캘커타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드라마 형태는 찬드라 고쉬와 디라반두 미드라 같은 극작가들에 의해서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캘커타는 아직도 프로 및 아마추어 무대의 중요한 중심지이며 실험주의의 중심지이고 인도 영화 산업의 출발 지역이 되었다. 세티아지트 레이와 미리날센과 같은 전위 영화감독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도시에는 20여 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항상 영어, 벵골어, 힌디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인도 영화는 세계에서 양적인 면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달리고 있다. 인도 영화의 주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 이야기인데 매우 역동적인 뮤지컬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5. 영적 상태

(1) 인도 전반

-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힌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닌 이들 삶의 문화로 받아들여 진다. 사단의 주(main) 통로가 바로 이 부분이다. 힌두종교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인도가 만들어지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흡수되고 통합된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면에서 힌두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유교문화를 버리는 것과 같다. 인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을 알고 숭배한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만을 믿느냐하는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린다. 힌두의 3억가량의 신중에 예수는 한 신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만 믿게 하려는 유일신론인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는다. 불교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상을 통합하는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 , 통합주의의 시작이 인도임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세상의 끝이 가깝고 성경의 예언들이 들어 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동세력이 어떤 실제로 활동하고 보여 지는 부분 이라면 인도의 혼합주의 사상들은 온 세계의 주(main) 사상이 되어 가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종교끼리 화해하면서 통합을 추구하는 이 행동들이 진정한 인류의 평화를 만드는 귀중한 다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 마태복음24장등에서 이미 경고되어 지고 있는 말세의 징조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평화의 길이라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보았을 때 인도의 혼합주의 사상은 크리스천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또한 힌두 종교의 영적 특성상 사회 전반은 무질서하고 명확한 구별이 거의 없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나 가격을 책정할 때나 확실히 정해진 것을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채로 존재한다. 거리에서 날씨로 인해 혹은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의 대기업 이사들조차 살기 어려운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는 부류도

있다. 혼합되고 질서 없는 의식이 팽배하면서도 과학이나 수학등 정확한 결과물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한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혼합된 형태들이 영적인 부분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힌두의 신화들을 보면 어떤 정해진 것들이 존재하기 보다는 다신론적 유일신으로 처음부터 신들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들어 오면 그 민족 고유의 신들을 합쳐버리고 때론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모든 신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과거 12세기에 들어온 마야사상은 가난한 인도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신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이렇게 있다가 죽는 식의 사상이기 때문에 가난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곳에 안주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깨지 못하게 한다. 인도의 영적 측면을 묘사하자면 마치 블랙홀과 같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밝고 명확한 질서를 찾아 보기 보다는 모든 것이 섞여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기에 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혼합된 사상들로 인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 간다.

(2) 켈커타 지역 (필요한 것 : 시바상징사진 , 칼리 상징 사진)

- 이 도시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도시의 신화적 유래이다. 파괴의 신 시바는 그 아내 데비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미쳐버렸다. 이에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 한 비슈누신이 데비의 시체를 52개로 잘랐다. 그 때 손가락 하나가 땅으로 떨어져 복수의 여신인 칼리로 환생했는데 이를 팔리카따(지금의 켈커타)라고 한다. 여신 칼리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기에 켈커타는 ‘죽음의 도시’라고 불린다. 켈커타 내에서도 많은 신들이 숭배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은 칼리와 그 남편 시바이다. 이 둘은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유래로부터의 영적 흐름이 켈커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도시에는 어느 도시처럼 우상들이 이들 삶 속에 깊숙이 베어 있다. 교통수단 , 가게 , 학교등 어떤 곳을 가도 그 우상조각 , 사진들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 어느 켈커타의 지역을 가도 수많은 우상 혹은 신전의 형태로 혹은 조그마한 집들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영적 세력을 잡는 중심은 아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주요 장소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큰 템플의 형태일 수도 있고 조그맣고 볼 품 없고 소외된 곳에 있는 조그마한 집의 형태일 수도 있다. 그것들을 찾아 내는 것이 그 지역에 지배하는 공중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효과적이다. 보통 시바를 나타내는 상징물은 검은 돌(남성의 성기를 상징)이다. 그리고 뱀이 그 주위를 둘러 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칼리는 여신의 형태로 많은 팔들을 가진 형상으로 나타난다.(보고서 뒤의 <참고4 - 힌두>편을 참고) 이들의 상징은 완

전한 사단을 나타내는 것들이었고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밖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람들이 주로 이들 신에게 비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다. 천주교의 묵주 같은 것을 어떤 횃수만큼 돌리면 그 신이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고 있다.(많은 과정 가운데 한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데 이러한 영적 상태는 켈커타를 그 유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죽음의 도시’ 라는 이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켈커타의 중심가에 있는 마이단 공원 위쪽으로 성세인트폴 교회/성당이 있다. 그곳은 천주교의 미사와 기독교의 예배가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되는데 항상 열려 있지는 않고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개방한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마치 하나의 종교이고 같은 것처럼 예배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1)인도전반에서 말한 혼합주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칼리갓’ 이라는 큰 칼리템플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마더테레사 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마더테레사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진리적인 측면이 아닌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 구조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도시 중앙에는 The Assembly of God Church라는 미국의 순복음 교단에서 지원 받아 만든 큰 교회가 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 언어로 건물을 나누어서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또한 학교도 가지고 있고 병원도 가지고 있어서 켈커타 내에서 상당한 입지가 있다. 그랬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켈커타에 만들어 놓으신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켈커타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더 이상 진리적인 복음측면에서 본다면 희망이 없지만 그 수 많은 신들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단을 효과적인 중보기도로 대적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를 것이다.



<여신 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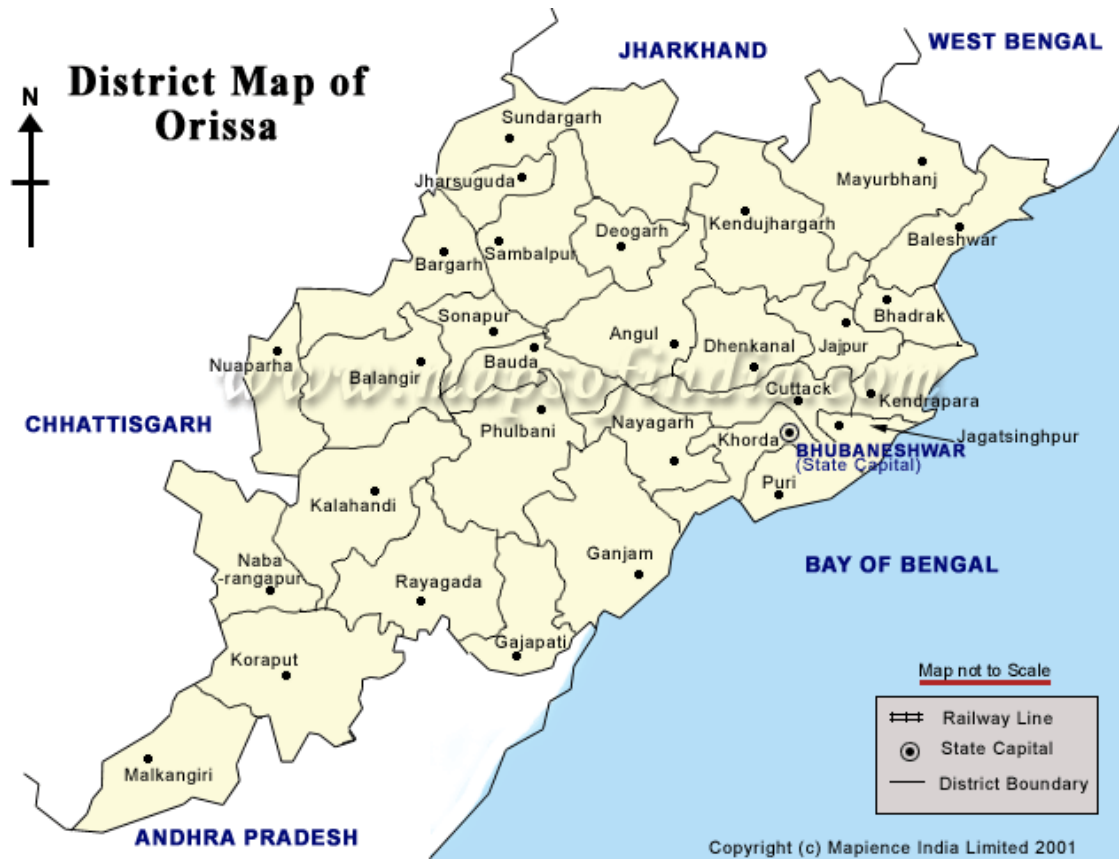


<시바 상징물>

III 오리사주 지역개관 및 문다 종족

1. 오리사주 지역 개관

(1) 지도



(2) 인구: 31,659,736

(3) 면적: 155,707평방km

(4) 수도: 부바네스와르 Bhubaneswar

(5) 언어 : . 오리야 82%, 타밀 2.3%, 힌디 2.3%, 벵갈 1.5%, 우르두 1.5%, 텔 레구 1.4%, 천민 카스트 (93) 1.5%. 천민 부족 (62) 23.1%.

(6) 종족 : 콘드 1,200,000, 곤드 686,000, 산탈 625,000, 사오라 483,000, 콜하 426,000, 샤바르 330,000, 문다 305,000, 파로자 285,000, 보타다 270,000, 부미야 260,000, 키산 250,000, 콜 236,500, 오라운 226,000, 부미지 202,000, 시알 184,000, 바투디 180,000, 카리아 166,000, 부미야 85,000, 코야 81,000.

(7) 위치 : 북으로는 웨스트 벵갈 West Bengal 주와 연결되고 남으로는 안드라 프라데쉬 Andhra Pradesh 주와 연결되고 있는 오리샤 주는 북서쪽으로 비하르 Bihar 주 와 연결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

고 있다.

(8) 역사 : 크지 않은 규모의 산들과 넓지 않은 평야지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 오리샤 지역을 바탕으로 일어섰던 왕조로 기록에 남아있는 첫번째 왕조는 칼링가 Kalinga 왕조이다. 인근 일대에 걸쳐 강대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던 이 왕조는 마우리아 Maurya 왕조의 아쇼카 Ashoka 왕과 다울리 Dhauli 인근에서 벌였던 치열한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는데, 이 때의 전투가 계기가 되어 아쇼카 왕이 불교도가 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불교도가 된 아쇼카 왕에 의해 다스려지던 이곳은 후에 자인 Jain교에 의해 물들며 우다야기리 Udayagiri 등지의 유적을 남겼지만 7세기경에는 힌두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푸리 Puri의 자간나트 Jagannath, 부바네스와르 Bhubaneswar의 링가라즈 Lingaraj, 코나르크 Konark의 수르야 Surya 사원들로 대변되는 이곳 특유의 양식을 지닌 많은 힌두사원들은 불교와 자인교 왕조들이 지나간 후에 이곳을 장악하였던 케사리 Kesari와 강가 Ganga 두 왕조에 의한 것이다.

이들 왕조에 의해 화려한 힌두문화를 꽃피웠던 이곳은 회교의 무굴 Mughul 제국이 그 무자비한 발을 이곳에 디딘 16세기를 기점으로 극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전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힌두 사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며 한층 흙으로 되돌아갔다.

(9) 생활 : 오늘날의 오리샤 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도내에서도 비하르 주와 그 가난함의 으뜸을 서로 다투는 한심한 처지의 지역이다. 이처럼 오리샤 주가 절대 빈곤의 지역으로 꼽히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다양한 종족의 원주민들(트라이벌스 Tribals) 때문이다. 아리안 Aryan 족들이 인도로 진입하기 이전의 주민들이었던 이들 원주민들이 오리샤 주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산간벽지에서 웅색한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가 특별한 소득 수단이 없는 이 지역을 더욱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10) 산업상황 : 경제는 최근까지 하천의 범람이나 한발에 시달려야 하는 조방(粗放)농업에 의존해 왔었으나, 근년 마하나디강 상류에 히라쿠드담이 건설됨으로써 관개(灌溉)에 주력하게 되었다. 또한 북서부 구릉지대에는 철광석·석탄·망간·크롬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어, 댐 건설과 더불어 루르켈라에 제철소가 세워지는 등,

다른 산업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인도 최대의 담수호인 칠카 호에서는 어업도 행하여지고 있다.

<출처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15167>>

(11) 특성 : 아직은 산업화가 덜 진행된 탓으로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데다 벵갈만과 만나는 해변이 있고, 강한 원색으로 치장된 현지인들의 순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오리샤 지역이다. 캘커타 등의 대도시에서 피로를 느낀 사람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피로해진 여행자에게 오리샤 지역은 한적하고 아늑한 휴식의 시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12) 종교: 힌두교 94.8% (수많은 정령숭배 부족 포함); 기독교 2% (카톨릭 0.8%, 개신교 1.2%), 회교 1.7%, 정령숭배 1%.

(13) 관광: 오리샤 주 관광청 OTDC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관광업자들은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 푸리(Puri), 코나르크(Konark)을 엮어 '황금의 삼각'이라 칭하며 관광사업 진흥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또한 색다른 것을 찾는 일부 호사가들을 겨냥하여 원주민 마을도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있어,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지닌 오리샤 지역이 좋은 관광지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출처 : http://www.india.co.kr/info/re_orissa.html>

2. 오리사의 문다 종족

(1) 개요

- 오리샤주는 70%가 시골에서 마을형태로 30%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은 1995년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는 숲이 우거진 밀림이었다. 그랬기에 도시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으며 선교사님은 문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셨다. 이처럼 많은 종족들이 깊은 밀림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와 접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인도 주 정부는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을 잇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하지만 문다 종족은 여전히 너무나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주거형태

- 문다 종족은 정글의 깊은 곳에서 가족별로 소규모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들은 농장 안에 집을 두고 있고 각자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

은 가축 사육장 바로 옆에 집들이 있고 화장실 또한 따로 없다. 그들은 보통 대가족형태를 이루며 살고 있고 밀림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3) 생활형태

1) 소득

- 문다 종족은 작은 나무들을 모으거나 잎사귀들을 모아서 도시에 판다. 잎사귀 여러 장을 한 묶음씩 파는데 0.5 RS (13.5 원) 정도를 얻는다. 또한 주로 농사나 가축을 기르면서 혹은 시내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살고 있다.

2) 결혼

- 그들은 노동력 문제로 인하여 결혼을 보통 18살 이하에 한다. 또한 아이를 한 가족에 적어도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다.

3) 시간관념

- 밀림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짜 체계가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

4) 의료

- 정부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들을 근처로 파견하지만 병이 걸릴 때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약초나 미신에 의존하는 편이다.
-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해결한다.

5) 종교

-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유사하게 그들 또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숭배한다. 때로는 그 영혼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한다.
- 문다 종족의 30%정도가 로마 카톨릭의 신자이다. 가까운 성당에 나가고 있다.

6) 사회질서

- 그들 나름의 사회적인 벌칙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섯’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기관에 있는 몇몇 노인이 누구를 벌하고 어떻게 벌할지를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하여 기관에 가서 불평을 하면 그 노인들이 듣고 직접 B에게 찾아 가서 질문을 하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4) 축제

- 11월에 ‘누아카이’ (New Eating)가 열린다. 이때는 첫 열매를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것인데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축제이다.
- 10월에 ‘디발리’가 열린다. 이 때는 그들이 사육하는 가축들을 모아두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 동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준다. 이 축제 때는 꽤나 시끄럽다고 한다.

(5) 기타

- 과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같이 의논한다. 또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6) 문제점

1) 경작(cultivation)문제

- 문다 종족은 기계나 가축(소,말)등을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지 않는다. 가축등은 그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토지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쌀 40가마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면 10가마정도 얻을 수 있는 경작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월~1월에 주로 나타나는 코끼리때로 인해 망치거나 밀림에서 사는 개들이나 새들에게 먹히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문제

- 문다 종족은 농사로 부족한 소득을 시내에 나가서 육체노동을 통해 하루 하루 채워 나간다. 주로 노동자는 skill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류는 목공수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두번째 부류는 막노동을 하게 되는데 문다 종족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3) 종교문제

- 문다 종족의 30%가 로마 카톨릭의 신자이지만 사실 구별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로마 카톨릭의 특성상 신도들에게 성경이나 규율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4) 건강문제(물문제포함)

- 물 문제 : 밀림에는 양질의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물이 흔하지 않아서 밀림에 가서 치약으로 대용하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이를 닦는데 마약 성분이 이 가지 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모기 문제 : 거주 지역 근처(가축,농지)가 더럽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 그래서 말라리아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 출산 문제 : 출산 시에 병원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기구의 사용 또한 미신적인 주술의 사용등

로 많은 임산부들이 죽는다.

- 영양 문제 :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영양결핍에 걸려 있다. 그들의 식사는 밥에 소금을 뿌려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다. 또한 그들은 소나 양으로부터 젖을 짜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얻지 못한다. 특히 많은 영양이 필요한 임산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교육문제

-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원하지만 하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일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 보다는 집에서 짐승들이나 돌보기를 원한다. 또한 집에는 전기가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도 교육상황이 좋지 않다.

(7) 인도의 시골 지역 관리 시스템

(a)구성(이름 : 본차일 드라쥐)

- 인도 주정부 → 오리사주 정부 → Collector → B.D.O → 씨펀드
- 본차일 : 마을을 모아서 그룹화 시킨 것
: 본차일의 반장은 씨펀드 라고 한다.
- Block : 본차일을 모아서 그룹화 시킨 것
: Block의 반장은 B.D.O 라고 한다.
- 이런 순서로 해서 주 정부는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을 관리하는데 인도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b)문제점

- 켈커타의 주 정당은 공상당이기 때문에 중간층을 지날 때 많이 착취되기 때문에 정작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한다.

(8) 문다 종족을 위한 선교사님의 전략

- 종교적인 취약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께서는 문다 종족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 주고 같이 기도를 하신다.
- 이 종족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김진홍목사님 책이라던지 공동체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활용한다.
- 물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파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 문다 종족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기숙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

서 학교에 다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계시다.

(9) 기타 문다 종족에 관한 자료

- 오스트로아시아어족(語族)의 다양한 문다어(語)를 사용한다. 언어는 아삼의 카시족, 인도차이나의 모이족, 몬크메르족, 그 밖의 여러 종족의 언어에 귀속되며, 인종적으로 프로토오스트랄로이드계(系)나 몽골로이드의 요소도 섞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 중앙부 · 남부의 하층계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두(長頭), 흑갈색 피부, 고수머리, 낮은 코, 안와(眼窩)의 융기(隆起)가 특징이다. 또한, 그 거주지역에서 출토된 유견석부(有肩石斧)는 동남아시아의 후기 신석기시대문화(後期新石器時代文化)에 이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 밖의 문화에서도 계단식 벼농사, 거석(巨石)문화로 상징되는 조상숭배, 영혼관념과 타계관(他界觀), 곡모신적(穀母神的) 관념과 신화, 산신숭배(山神崇拜) 등 인도의 다른 원주민보다도 아삼 이동(以東)의 동남아시아 도작민족(稻作民族)과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일찍이 동남아시아일대에 생존한 농경민족이 그 뒤 인도차이나어족의 남하로 분단되고, 그 서쪽에 남은 종족이 문다계 제족(諸族)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힌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독특한 영혼관 · 타계관 · 풍요관(豐饒觀) 등으로 보아 간접적이기는 하나 아리아족 문화전개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화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출처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65483>>